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2008년도 표어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10:10)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아모스서 강해

## 여러 가지 환상들

(아모스 7:1-14)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처음에는 메뚜기 같은 보잘 것 없는 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됩니다.

### 1. 재앙의 환상들

#### (1) 메뚜기 재앙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1절).

이 메뚜기 재앙은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재앙과 흡사합니다. 메뚜기 재앙이 내린 때는 일차적인 추수는 끝난 때입니다. 일차적인 추수는 첫 곡식, 첫 열매를 말하는데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먼저 추수하는 것입니다. 일차적인 추수가 끝나고 거기서 다시 움이 돌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고 했으니 싹이 나와 추수를 기대하는 때 메뚜기가 나타나서 이삭을 모조리 갉아먹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생물에 의해서 아주 커다란 손해를 가져오니 메뚜기 재앙은 파괴적인 고역을 의미합니다. 큰 일을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일이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2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애원하였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한 것은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떠날 때 심판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두고도 심판을 안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죄는 그대로 두고 무조건 하나님의 자비만 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날 때 비로소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본문 3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돌이키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돌이키신 것이 아니고 죄가 사라졌으므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의도입니다. 고의적으로 계획을 세워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 (2) 불의 재앙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4절).

이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불로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불이 없고 불만 있습니다. 불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내리시는 죄의 대가입니다.

#### (3) 다림줄 재앙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8절).

다림줄 재앙은 한 치도 어긋나지 않게 재어서 심판하는 심판의 확실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측량사가 자로 재는 것처럼 정확하게 재서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억울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하고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 2. 심판의 대상

하나님께서 공격하시는 대상은 변두리가 아니라 핵심인 산당과 왕궁입니다. 종교인들, 다스리는 사람들, 앞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죄는 타락한 종교와 부패한 정부입니다.

#### (1) 타락한 종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남용하고 오용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서도 성전에 와서는 겨우 땅의 열매를 통한 세속적인 번영과 부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세상에서 만질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타락한 종교이며 하나님께서 괴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에 대해 기도의 응답이라기 보다 자기들의 의식과 가견적인 행사로 인해 베풀어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 (2) 정치적 부패

“내가 일어나 갈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9절). 여로보암 집의 죄명은 한 마디로 불순종입니다. 여로보암의 불순종은 정치적인 부패로 사회적인 악으로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벨벳과 단에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를 드렸으니 이것은 율법에 대한 반역이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배신입니다.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재앙을 선포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마음은 안 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의 환상을 본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메뚜기 같이 보잘 것 없는 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됩니다.

속히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제34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개강

9월8일(월), <현대사회와 복지 목회> 주제로

서울교회 부설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한국교회 갱신연구원(원장 이종운)에서 주최하는 제34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9월8일(월) 개강한다.

이번 학기 주제는 '현대사회와 복지목회'로 1교시-이종운 목사의 마태복음 강해와 2교시-복지와 관련된 전문가를 통해 현대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장애인, 노인, 아동의 문제를 짚어보고 그들의 복지 문제를 신학적으로 진단하고 관련 프로그램과 실천

사례 등을 듣고 배우게 된다.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 설립된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은 지금까지 매년 1, 2학기 10주간씩 전국의 목회자를 위한 신학세미나를 열어 강의실이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이번 제34학기를 개강하게 되었다.

이번 학기도 수많은 국내 목회자들로 가득 차은혜 중에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한다.

일자(월)	주 제	강 사
9월 8일	21세기 미래 사회의 문제점 진단과 대책	김상균 교수(서울대)
9월 15일	추석연휴	휴 강
9월 22일	교회복지의 신학적 근거	김재진 박사(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부원장)
	정부의 복지정책이 사회발전엔 미치는 영향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국
9월 29일	교회와 취약계층의 복지	이익섭 교수(연세대)
10월 6일	교회와 사회복지행정의 상관관계	강철희 교수(연세대)
10월 13일	교회와 노인복지	최성재 교수(서울대)
10월 20일	교회와 아동복지	노충래 교수(이화여대)
10월 27일	교회와 장애인복지	김해용 목사(사랑의 복지재단 이사)
11월 3일	교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정무성 교수(숭실대)
11월 10일	교회복지의 실천사례보고	김문용 장로(남산기독교복지재단 대표이사)

## 열린바자 준비에 구슬땀 흘려

9월4일(목)-5일(금) 이틀간 열려

2008년 바자 준비위원회(위원장 왕경래 장로)는 무더위 속에서도 준비위원 모임을 갖으며 준비에 여념이 없다.

올해 열린 바자는 추석이 9월 중순부터 시작되어 한 주 전인 9월4일(목)부터 5일(금)까지 2일간 교회 앞마당, 1층 로비, 7층과 8층 식당 그리고 한티공원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바자는 이웃을 섬기고 아가페 타운 건축을 위한 열린바자로 준비되어 수익금을 아가페타운 건축현금으로 드리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성도들의 기증품 접수는 사무국에서 하고 있다.

이번 열린바자를 섬기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 대회장: 이종운 목사 · 지도: 이태훈 목사 · 위원장: 왕경래 장로

부서명	부장/실명위원
기획부	오치열/김성준 안인호 유기찬
재정부	오형철/홍일성 이인순 안본선 정경자
판매관리부	김시환/김현관 윤명구 최미아 정미연 위성남
섭외부	이강인/유을상 한중우 안홍희
홍보부	서춘식/강석우 김민철 허숙
시설관리부	양춘경/유근중 원용범 이종창 안성현 예완식 진승근 박조현 이승우 김원중 이인근 오교식
주차관리부	유형석/차량안내위원

점포별	담 당(점포지도 교구위원장: 임상헌 장로)	점포별	담 당(점포지도 교구위원장: 임상헌 장로)
1 점포	한상은/허영수/최규초 임성우 박현영 다락방 전원	8 점포	정수길/김대호/강낙훈 김정은 다락방 전원
2 점포	한상은/이복규/이동만 박성금 다락방 전원	9 점포	이관규/이남성 황노전 다락방 전원
3 점포	이규정/하인선/송인권 강운숙 다락방 전원	10 점포	윤찬오/김재근 김은순 다락방 전원
4 점포	이규정/임훈규/이학명 윤용미 다락방 전원	11 점포	서명철/박정선/한상준 김혜련 다락방 전원
5 점포	이태훈/성준경/이승래 장낙희 다락방 전원	12 점포	서명철/임상원/장덕 김선영 다락방 전원
6 점포	이태훈/노승성/권장철 윤숙희 다락방 전원	13 점포	노현상/서문석/주동재 박춘자 김혜란 다락방 전원
7 점포	정수길/이영기/정동학 한성숙 다락방 전원	14 점포	노현상/홍성주/한광마 박정임 다락방 전원
		특 판	서명철/오정수/유을상 김영호/권혁우 김광통 최용걸 박정수 손태현

## 제8기 단기선교단 파송

오늘 찬양예배 시간 - 인도로 파송

우리교회는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제8기 단기선교단(단장 이영기 장로) 19명을 인도로 파송한다.

8기 단기선교단은 인도 뿌네지역에서 현지에 파송된 선교사를 도와 여러가지 활동을 펴고 8월12일(화) 귀국한다. (관련기사 본지 4면 참조)

많은 열매맺고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 2008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

8월10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우리교회 장학위원회(위원장 윤찬오 장로)는 2008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하고 8월10일 찬양예배 시간에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이번에 선발된 학생들은 총 48명으로 본인의 믿음이 신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교회에 봉사하는 모범적인 학생들을 선발하였으며 총 5,464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2008년 하반기 장학생들은 반드시 찬양예배에 참석하여 장학금을 받도록 한다.

서울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말씀 안에서 이 나라를 이끄는 일꾼들로 서도록 기도한다.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 -10명-

이민음 김미래 오경미 김은비 김필구 이인영 송한영 박한샘 손형호 Bhandari Binayak

<브리스길라 장학생> -신학생 3명-

김종일 최오섭 노재균

<고등부> -3명-

심송 성기방 최고은

<선교사/교역자 자녀> -6명-

이건우 이관우 김영수 서민애 임진호 임지선

<송암장학생> -찬양대 반주자/솔리스트 20명-

김영미 신유경 정동호 박혜진 주현민 진현구

배영광 이범주 김남욱 김성현 김종표 강운희

이현규 최예은 박승기 김현수 이실비아 구슬희

이영희 박해인

<디아스포라부> -6명-

김철훈 박은아 김영복 박복실(박연실) 한정남

채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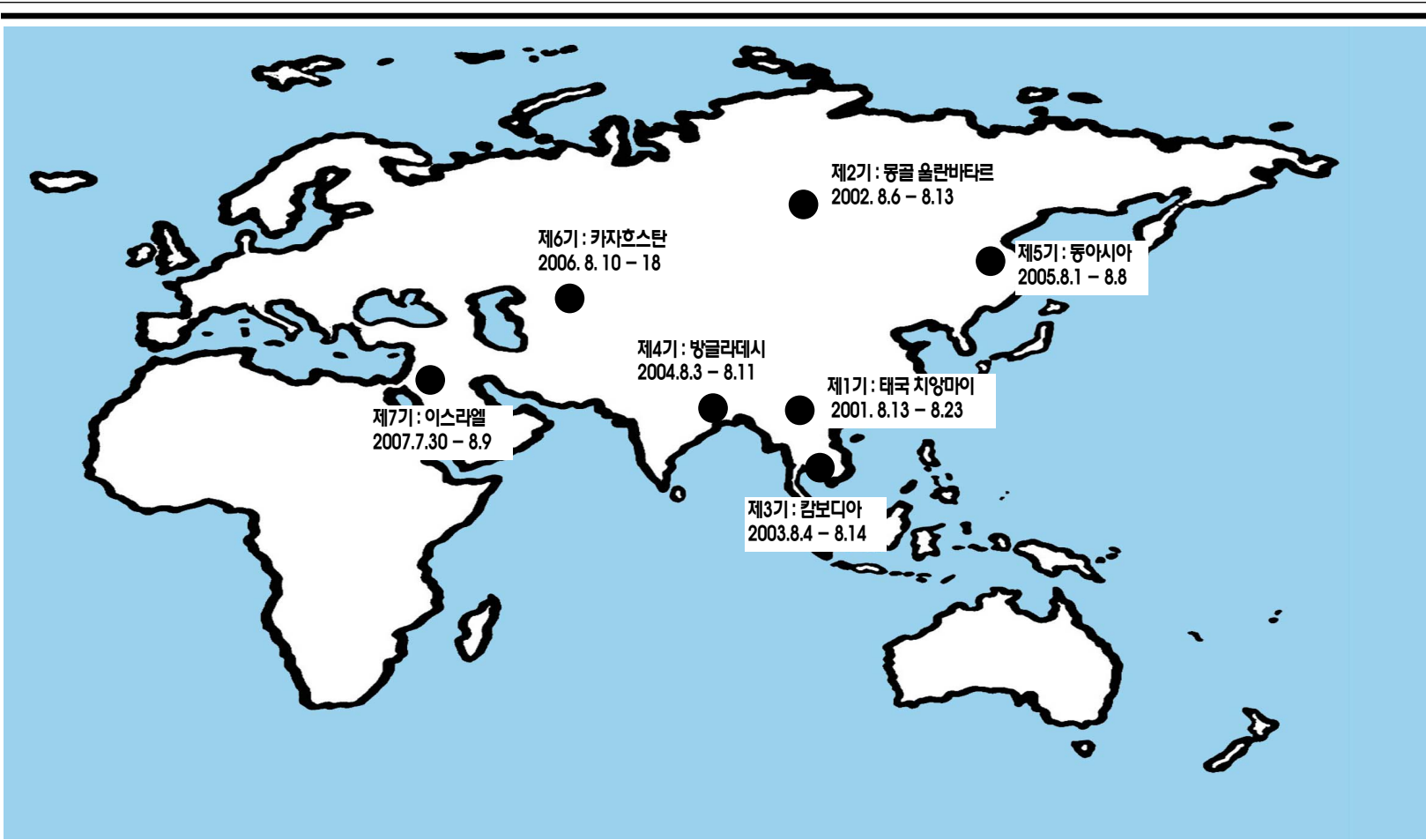
총 48명

## 황 광 목사 청빙



우리교회 당회는 황광 목사를 부목사로 청빙하기로 하였다. 새로 부임한 황 목사는 1968년생으로 장신대 신학과(B. Th)를 졸업하고 장신대 신대원(M. Div)과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Th. M)을 졸업하였다. 1999년 4월 13일 용

천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황 목사는 이성혜 사모와 신혜, 성진, 휘성 세 자녀를 두고 있다.



만민에게 전도 - 단기선교(2001년-2007년)

# 서울교회 단기선교 7년의 자취

· 제1기 : 태국 치앙마이  
 · 시기 : 2001. 8.13 - 8.23  
 · 인원 : 고경선 목사, 박철훈 장로 등 27명  
 · 주요활동 : 현지에서 10년간 사역중인 이양동 선교사를 도와 후아이라이, 매뽀따 등 산지족 마을 방문 전도 및 현지 교회 설립활동 지원



· 제3기 : 캄보디아  
 · 시기 : 2003.8.4 - 8.14  
 · 인원 : 김운호 목사, 김광신 장로 등 23명  
 · 주요활동 : 수도 프놈펜, 품뽕툼, 품스라 등 3개 지역을 돌며 각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집회, 어린이성경학교, 노방전도, 의료, 이미용, 방

· 제6기 : 카자흐스탄  
 · 시기 : 2006. 8. 10 - 18  
 · 인원 : 장석남 목사, 신용식 장로 등 30명  
 · 주요활동 : 우리교회 파송 이은준, 강혜정 선교사를 도와 현지교회 건축 지원, 그 외 찬양과 연극, 율동, 태권도, 미용, 의료 사역.

· 제7기 : 이스라엘  
 · 시기 : 2007.7.30 - 8.9

· 제2기 : 몽골 울란바타르  
 · 시기 : 2002. 8.6 - 8.13  
 · 인원 : 이규정 목사, 김사무엘 장로 등 28명  
 · 주요활동 : 울란바타르 아멘교회 양재철 목사님을 도와 수련회와 찬양집회 참가 및 의료, 미용봉사, 몽골유니온신학대학과 울란바타르 대학 등 순방.

역 등의 사역.

· 제4기 : 방글라데시  
 · 시기 : 2004.8.3 - 8.11  
 · 인원 : 윤영국 목사, 오정수 장로 등 32명  
 · 주요활동 : 시라즈곤즈 등의 지역에서 초등학교 전도집회, 집짓기, 의료, 이미용 사역, 빈민탁아소 봉사 등



· 인원 : 한상은 목사, 노문환 장로 등 25명  
 · 주요활동 : 예루살렘 '순례자의 집' 교회 창립 예배, 현지 대학캠퍼스 선교활동.

정리 : 김민철(편집부)



· 제5기 : 동아시아  
 · 시기 : 2005.8.1 - 8.8  
 · 인원 : 서명철 목사, 홍성주 장로 등 30명  
 · 주요활동 : 동아시아 지역 현지 기독교 교사들과 연합 집회, 찬양, 드라마, 인형극 등



# 단기선교를 떠나며



이영기 장로 (인도단기선교단장)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서울 교회 온 성도님들과 인도 단기선교를 떠나는 단원들과 함께 해주 시기를 원합니다.

2008년에는 세계 4대문명의 발상지 중 에 하나이며, 약 11억 인구와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인도로 주의 복음을 증거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메시아 되심을 직접 전하신 것처럼, 저의 일행은 4일 출발 12일 도착 예정으로 인도중부 뿌내 지역으로 가서 9곳을 방문하여 현지 신학교와 교회를 방문하고, 선교 동역자 및 일 천 여명의 현지인들을 만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주께서 택정하신 인도의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일부 역사가들의 주장대로 오래 전에 복음이 증거 되었으나 인도인의 대부분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 이제 인도에 건너와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 복음을 전해달라고 . . .

비록 19명의 적은 인원으로 구성 되었지만 11억 인도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어린이들과 소외된 인도의 형제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사단의 궤계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기를 위하여 복음 전하는 사역에 온전히 헌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지에서 단기선교사역하는 저희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주의 복음이 인도에 증거 되기 위하여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야만 성공적으로 단기선교사역을 행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그 동안 단기선교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신 이종윤목사님, 당회원님과 온 성도님들을 존경하며 매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여름, 온 교회와 가정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 인도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 주께서 사랑하시는 19명의 자녀가 "인도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떠납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만 의지하며 영적 전쟁터로 떠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 이영기 장로 - 인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 이영숙 권사 - 인도의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가게 해주세요.



· 김명심 권사 -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함을 보게 하시고 이루어드리게 하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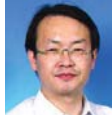
· 곽 숙 권사 - 하나님께서 주신 손으로 복음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 최미야 권사 - 우리의 섬김이 인도의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 이관모 권사 - 인도의 영혼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칠 수 있게 하옵소서.



· 김영주 집사 - 인도의 복음화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 김숙자 집사 - 인도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 최경분 집사 - 부족한 저에게 인도단기선교의 기회를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금숙 집사 - 성령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선교팀 되게 하옵소서.



· 신두호 (청) -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마음가짐을 잃지 않도록.



· 정영은 (청) - 인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 박재원 (대) -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를 사랑할 수 있기를! 단기선교팀 화이팅!



· 박정현 (대) -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 주서희 (대) - 낯선 땅에서 주님만의 지하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 차신영(대) -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오겠습니다.



· 최인애(대) - 담대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김명비(유) - 인도의 어린이들을 하나님께로!



· 정수길 목사 - "내가 여기 서 있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Hier stehe Ich. Gott helfe mir. Amen!  
- 보름스의 루터처럼

민약한자구제

# 우리 다 함께 열린 바자를

왕경래 장로 (바자 준비 위원장)

우리 교회는 매년 추석을 앞두고 열린 바자를 열어 왔다. 금년에도 9월4,5일 양일간 교회와 한티 공원에서 아가페타운 건립과 이웃돕기를 위한 바자를개최 한다. 그간 우리의 바자는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함으로써 불자 절약과 자선이라는 의미 외에도 여기서 얻은 수익금으로 예배당 건축, 전도, 불우 이웃돕기를 하는 등 매년 의미 있는 행사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왔으며 일일이 열거하기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어 왔다.



우리 교회의 3대 목표 중 하나인 민약한자 구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였으며 소외된 장애우와 노약자를 돌보는 사랑의 집을 건립하라는 사명을 받았다.

이번 바자는 이웃을 섬기고 아가페 타운 건립을 위한 바자로 온 성도의 정성을 모아, 소중이 간직하고 있는 귀한 것들을 나누어, 사랑을 나누고 기쁨과

희생을 나누는 한마당의 축제가 되기를 소망 한다.

이에 바자 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추진 방향을 세우고 실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첫째 각 가정마다 평소에 아껴 사용하는 귀한 물품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가치 있는 물품을 옥합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판매장에 내어 놓아, 꼭 필요한 사람이 재활용토록 한다, 둘째 전교인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상 장터에 나와, 예수님의 희생정신을 본받아 한 가지 이상 물품을 구매하여 사랑의 벽돌 쌓기에 동참한다.

기도와 정성으로 맛과 멋과 향이 어우러지는 열린 서울 장터로 초대하오니 전교인은 지역 주민, 친지 특별히 불신자를 모시고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복음전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헌신과 봉사의 예물을 드려 풍성한 천국 잔치가 베풀어지기를 소망한다. 바자 기증품을 사무국에서 계속 접수하오니 온 성도들의 정성어린 출품을 기다린다.

참한다.

참한다. 기도와 정성으로 맛과 멋과 향이 어우러지는 열린 서울 장터로 초대하오니 전교인은 지역 주민, 친지 특별히 불신자를 모시고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복음전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헌신과 봉사의 예물을 드려 풍성한 천국 잔치가 베풀어지기를 소망한다. 바자 기증품을 사무국에서 계속 접수하오니 온 성도들의 정성어린 출품을 기다린다.

나의 하나님

# QT 하세요

최화미(대학부)

여러분은 큐티를 하고 계신가요? 제가 대학부에 와서 배운 것 세 가지를 꼽으라면 기도와 사랑과 큐티를 통한 나눔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006년, 제게는 '복합성국소성통증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름도 길고 지루한 병이 찾아왔습니다. 팔이 평상시의 세 배나 부었고 그 통증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해는 제가 재수를 할 때여서 병은 나한테 업친데 업친격이 되어 몸은 물론 맘의 고통을 몇 배가 가중시켰습니다.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았고, 누구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돌파구를 찾고 싶은 생각으로 성경에 매달렸습니다. 그간 부정기적으로 하던 큐티를 매일 매일 하게 되었고 제 삶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큐티는 하루의 나침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하루,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여는 하루는 그 방향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사람들을 향한 나의 맘은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고 2007년이 시작되는 대학부 겨울 수련회에서 저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병은 더 이상 제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고 스스로 없이 다른 이들과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보니 세상에는 나보다 더 힘들고, 더 많이 아픈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대학부 선후배 5명과 시골로 거지 전도를 다녀왔습니다. 오직과 말씀과 기도만으로 다녀온 전도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저는 또 한 번 하나님 말씀의 위력을 경험했습니다. 아무 것도 준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때 못지않게 큐티와 기도로 전도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돌아와 하루를 돌아보면 그 날의 큐티가 하루를 정확하게 묘사했고, 그 날의 힘이 되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가진 꿈들이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간절히 바라는 것이기에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제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이즈음 여러분들도 큐티와 더불어 영혼이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천국시민양성 - 중등부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 “나는 하나님의 리더”

이예원 (중등부)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우리 중등부는 가평에 있는 아가페타운으로 여름수련회를 다녀왔다. 수련회 참석 여부는 언제나 나를 포함한 많은 친구들의 고민 사항이었으나, 이번 수련회는 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가야한다는 부장 선생님의 말씀에 나는 갈등 없이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처음 도착하고 나서 드린 여는 예배에서, 나는 언제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하고 게으름도 하나의 죄라는 점을 새롭게 배울 수 있었다. 설교를 들으면서 가끔 주일 아침 게으름 때문에 예배시간에 몇 분씩 늦으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지 못했던 자신을 많이 회개하게 되었다. 저녁 집회에서는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이태훈 목사님께서 해주셨다. 가끔 친구나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위해 해 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고맙다는 생각이나, 표현을 하지 못한 자신을 또 한 번 회개하게 되었다.

이번 수련회에는 많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 중에서 요리보고 성경보고와 Quest가 제일 마음에 들었다. 요리보고 성경보고에서는 성경에 관한 퀴즈를 풀고 음식 재료를 가져와서 음식을 만들었고, Quest에서는 많은 위대한 성경속의 인물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도 체험해 보는 것으로 성경속의 위인들과 그들의 행적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와함께 다양한 조별활동을 통해 같이 중등부에 속해 있으면서도 잘 모르고 지냈던 친구들을 좀 더 알 수 있게 되었고, 평소 친하던 친구들도 조별 생활을 통해 더욱 친해지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번 중등부 여름 수련회를 통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한 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크게 감동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좋았다.



여름수련회 (종회여름 성경학교 주제)

# 하나님 나라와 다음 세대 부흥!



Jump to Jesus!

하나님 나라를 세워요



## 나는 하나님의 리더



###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순서는 아멘 관현악단의 독주와 중주로 준비된다. 특히 6개의 클라리넷과 테너 색소폰이 어우러지는 목관 중주는 아름답고 특이한 음악 세계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미국 오벌린 칼리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김지영 선생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를 연주하고 그 외 2곡이 더 연주된다.

제1클라리넷 이인, 이윤승, 제2클라리넷 정인주 집사, 이광 제3클라리넷 이영조 집사, 이견모 집사, 테너 색소폰에 장영기 집사가 연주자로 나선다. 피아노 반주에 홍해란 선생이 수고한다. 다음 주는 그동안 준비해 온 "무지개 어린이 합창단"이 특별찬양을 드리며 창단식을 함께 갖는다.

### 2008 성경암송대회

금년 성경암송대회는 예선을 10월 19일(주)에 본선을 10월 24일(금)에 갖는다. 암송범위는 베드로 전서 1-5장 전장이다.

#### 동정

- 이갑진 장로 : 캄보디아 이재물 선교사와 함께 8/4-15까지 캄보디아 특전예단, 수방사령부에서 영어캠프와 의료사역,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 교역자 여름휴가: 서명철 목사(8월4-9일, 대행: 이규정 목사) 이태훈 목사(8월4-9일, 대행: 한상은 목사) Joshua Cho 목사(8월 4-7일, 대행: 장석남 목사)
- 주간식당봉사: 에스더전도회(8.3) 한나전도회(8.20)
- 금주의 식사 : 우상태 집사 방송희 권사 가정 백수남 집사 김영희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아가페 타운 건립 위해 헌금을 바친 이, 작정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2. 아가페 타운 건립이 방해꾼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3. 무더위와 장마철에 온 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4. 올해 안에 한 가정 이상 전도하게 하소서.
5. 정국이 안정되고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 교회오시는 길

